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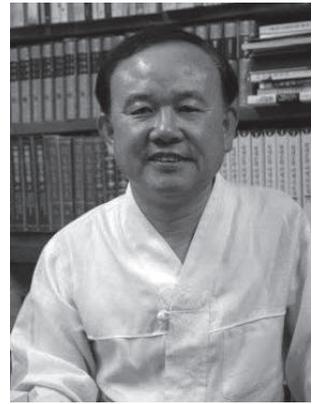
표지이야기

허진, 유목동물+인간-문명2010-32, 한지에 수묵채색 및 아크릴, 130×162, 201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 전남대 교수. 개인전 29회, 「젊은 모색 90-한국화의 새로운 방향」(국립현대미술관) 등 460여개 기획전 참가. 1989 제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관광부), 2015 10th DAF GoldenEye 한국구상작가상(DKFA) 수상(전북 김제), 201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 수상. 2017 제37회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 수상.

2	'창'을 열며 남북 문화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자	백수인
3	특집기획_ 광주문화재단 10주년 성과와 과제 광주문화재단 10년 그리고 앞으로 창립 10주년 광주문화재단 어디쯤 와 있나? 광주문화재단, 오래된 미래 생각 광주시장과 문화재단 신임 대표에 바란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와의 만남	전고필 이당금 임홍석 정두용 김정희·황풍년
16	문화인 탐구생활 예술의 중심에서 예술인을 말하다	임인자·장도국
21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세상에 물들지 말라	임준성
24	문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5·18의 40년을 지나 "40+1"을 준비하며	이병훈 정찬일
30	문화현장 우리 시절 아카이브 미래기념비 탐사대, 망각과 기억 사이를 탐사하다!	조운윤 문다은
36	문화청년그룹 다양한 문화 활동의 일반성을 꿈꾸다	김훈민
38	문화리뷰 마스크가 익숙한 아티스트들에게	이준혁
40	문화톡톡 문화광주	김옥렬
42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남북 문화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자

백수인_ 재단 이사장·조선대학교 명예교수



남북이 갈려서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지 7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통일을 염원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서로 자유로이 왕래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72년 7·4공동성명 이후 여러 차례 남북간에 대화를 하거나, 남북 정상이나 만나서 회담을 하고 교류 협력을 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운영 등 상당히 진척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늘 정치적 이유로 다시 중단되었거나 철수되고 말았다. 반복해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진듯하다가 다시 막히곤 한 것이다.

아무튼 체제를 달리하여 서로 적극적 소통 없이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남과 북이 분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점점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겨레,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 중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어마저도 이제 점점 더 이질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이질화 속도를 줄여야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치적인 문제들이 어렵다면 지금부터는 비정치적인 문화 분야부터 다시 교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막혀 있는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 남북이 그동안 교류 합작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이다. 이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결성하고 실행에 들어간 사업이다.

2010년 가을, 나는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개최되었던 <두만강포럼>(Tumen River Forum)이라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다. 거기에서 북한 학자 10여 명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학자들 중에는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결성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북측 편찬위원 한 분이 있었다. 이 북측의 언어학자는 그때만 해도 『겨레말큰사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희망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동안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총 25차례 이상 직접 만나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공동회의를 통해 남북의 언어학자들은 언어통합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으로 진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제25차 남북공동편찬회의(아래 ‘공동회의’)를 개최한 후 중단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이룩해 놓은 실적도 상당히 쌓여 있으므로 재개만 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문학, 음악 등 예술 분야를 개발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남과 북에서 높이 평가되는 문학 작품들을 모아 단행본이나 전집으로 발간하여 남북 사회에 보급한다거나, 남북 가무단의 온라인 공연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면 얼마든지 교류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위해 남북 문화 교류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문제는 실행의 지이다. www

특집기획

광주문화재단 10주년 성과와 과제

올해는 광주문화재단 창립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초기에는 시행착오로 꾸지람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덧 시민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광주문화재단 창립 10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4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황풍년 대표이사의 포부와 각오도 담아보았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지난 10년의 성찰과,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광주문화재단 10년 그리고 앞으로
전고필_ 전남지오그래픽 소장
- 창립 10주년 광주문화재단 어디쯤 와 있나?
이당금_ 푸른연극마을 대표
- 광주문화재단, 오래된 미래 생각
임홍석_ 광주소극장협회장
- 광주시장과 문화재단 신임 대표에 바란다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와의 만남
인터뷰어 김정희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편집위원장
인터뷰이 황풍년_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문화재단 10년 그리고 앞으로

전고필_ 전남지오그래픽 소장



광주문화재단이 10년이 되었다. 창설멤버였으며 가장 먼저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택했던 터라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거기에 글까지 쓰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출범 당시의 상황과 이후 재단이 가져왔던 행보와 내부자들의 움직임을 지근거리에서 보는 처지라 여과없이 지난날들의 일들 사이에 미래를 엿보며 필요한 것들은 주문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광주문화재단의 출범은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표방하는 광주의 도시 정체성에 비해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90년대 말 경기문화재단의 출범을 위시로 광역도시에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을 겸한 문화의 매개자로서 설립이 촉발되고 있는데 반해 광주는 문화도시론이 그렇게 풍성하게 담론화되며 직접 그 현장으로서 문화전당이 준비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견주어 광주의 파트너가 되어줄 모집단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낯설게 보여지는 이유의 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었나 싶다.

하긴 재단이 설립되었어도 전당과 지역의 씽크탱크와 같은 역할로서 대등하게 광주를 아우르며 성근진 대화의 테이블은 형성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이는 광주의 정치인들이나 행정이나 원로들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이를 정책과 현장에서 만나게 하는 접점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다는 점의 방증이기도 하다. 하여튼 엄중한 시기, 막중한 사명을 띠고 탄생한 재단의 구성원은 25명으로 예술인 몇명, 문화현장의 일꾼들 소수, 언론인 출신 몇명 등을 위시하여 구성되었다(현재는 104명). 출범 시기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인다.

하나는 문화정책의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였고, 두 번째는 조직의 안정화였으며, 세 번째는 광주시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만만한 상황은 아닌지라 어찌보면 지난 10년은 조직의 안정화

를 빌미로 한 재단 인적 구성원의 안정화에 더 몰입한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사실 필자의 경우는 시대착오적이지만 재단의 정규직화는 문화가 갖는 특성을 다시 한번 권력에게 재단 당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직원들의 장기근속이 늘면 늘 수록 현장 보다는 서류를, 토론 보다는 자가 결정을 선호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적은 간부 보직을 더 늘리며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눈에 잡혔기 때문이다. 이럴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것이 선하게 보였던 것은 유례없는 간부직원들의 과잉급여 지급이라고 스스로 결정짓고 감사를 청구하며 그 결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린 상황이었다. 염불에 관심이 아니라 잣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순간이었는데 당사자나 지켜보는 이들이나 모두들 얼마를 토해내는가에 집중할 뿐이었다. 재단 내부의 권력과 지향성이 민났으로 드러난 순간이었고 이리다간 문화재단의 본질적 사업이 아니라 다달이 월급 따복따복 들어오는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 투성으로 변하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내부는 견고해져 갔는데 외부에는 이런 사실들이 보이지 않고 공유되지도 않는다. 이는 재단이 의사결정구조에서 현장과의 소통이나 참여 과정을 게을리 하거나 혹은 선택적 그룹에 한해서의 통로에 안주하는 것 아닌가 반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재단이 모든 일에 이렇듯 흐린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지역문화의 씩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당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폐산업시설의 유희공간화 사업의 전범과 같은 소촌 아트팩토리 사업과 같은), 유네스코 미디어창의도시 지정에 따른 미디어 기반 사업과 레지던스 사업, 광주의 역사와 현재를 보듬고 가는 광주학총서 발간과 콜로키움의 전개 등에서 조직의 특색과 열정을 과감히 드러냈다. 거기에 전통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무등산이

주인이 되어 전개되는 무등올림도 있으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도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업면에서 갖는 노력과 성취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 반해 재단의 내부가 갖는 조직적 결함이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현상을 매끈하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인데 외화내빈이라는 말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제 10년 신발끈을 조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할 지점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낙점되어 내려온 대표가 아니라 투명한 인사과정을 통해 공정한 대표와 함께 펼 지위를 확보했다.

의미를 살리고 가치를 고양하며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재단을 위해 드리는 주문은

첫째는 조직의 인화에 매진해라는 점이다. 재단은 광주문화의 전면부이며 얼굴이다.

둘째,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서류의 전문성이 아니라 문화정책, 문화현상, 문화사회 등에 심취하고 내재화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으로 나오라. 현장에서 예술가들과 만나고 공감하고 때로는 구박도 받으면서 정책이 현장과 어떻게 조응하고 위배하는지를 직접 익히고 반영하라. 그만한 내력도 갖추지 않으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들은 솔직히 미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광주문화재단 10년. 그대가 있어 행복했다는 고마움을 얘기할 사람, 앞으로도 광주문화, 지역문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광주문화재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매진해 달라 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창립 10주년 광주문화재단 어디쯤 와 있나?

이당금_ 푸른연극마을 대표



지역 문화 예술 창조 도시의 뜻을 달고 10년 미래를 향해 광주문화재단호가 항해하는 동안.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문화중심도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허브,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조도시 광주등의 원대한 네이밍과 아시아권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랜드마크까지 건립되었다. 광주 10년사에 눈부신 업적이다. 게다가 서울문화중심에서 지역중심의 문화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이 답이다라는 인문철학적 논의가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적당한 때는 없을 것 같다. 또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출된 황풍년씨가 광주시의회 청문회에서 지지 박수로 통과 되었다고 하니 간만에 지역문화예술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충분조건은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재단 직원들까지 협업이 된다면 금상첨화이지 싶다!

오래된 미래 _ 집중과 선택

문화예술이 지원금 없이 사회적 기능과 공공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는가? NO!

최근, 몇 명의 전업 예술인들과 2021년 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오래된 미래” 익히들 알고 있겠지만 오래된 것이 미래라는 것, 예향과 의향이라는 광주는 80년 오일팔을 기점으로 오래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에 짓눌리다보니 문화적인 시공간이 풍부함에도 소외된 도시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술가와 오래된 공간 덕분에 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원대한 네이밍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지만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정책을 요구하는 시대에 문화재단의 일련의 사업들은 방향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30년 이상을 한 전업작가나 사회생활도 없이 이제 막 작업활동을 하는 청년작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는 시스템은 예술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랜 세월을 지켜온 민간단체는 시예술단체 예산에 밀려서 지원사업의 경쟁에 뛰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모 단체가 사업을 독점하고 지원금을 다 챙긴다는 등의 이상한 소문이 돈다. 구조적으로 1단체 1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문이 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지역브랜드 단체와 신생 단체가 같은 사업에서 경쟁하게 되는 불공정 시스템 때문 아니겠는가? 지역을 이끌어 온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신생단체를 육성하는 사업, 시민문화를 견인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도 직장인도 호봉이라는게 있어서 년 수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예술은 왜 그런 적용을 안 하지?” “소통, 공유, 거버넌스? 결국 예술가는 들러리잖아!” “물라서 그런다면 배우면 되겠지만 알면서도 못 하는건데 안 그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와 단체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재단은 문화예술교육사업까지 포함해서 1단체 1사업을 추진하며 소액 다건으로 나눠주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타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예술과 교육은 분명 다른 영역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한쪽에 집중하면 욕먹는다면서 모두에게 다정하고 친절할 문화재단이 되고자 한다. 올해 중앙부처 사업중 몇 개 사업이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지역 예술가들은 매년 사업신청 시기만 되면 사업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기획하여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고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받아 선정되거나 탈락된다. 결과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요악 같은 기준일테다. 그렇다면 왜 예술단체(가)만 평가되어야 하는가? 예술가를 평가하는 광주문화재단 사업 평가는 누가 하는가? 비공식적인 얘기로 2019년 광주문화재단 사업보고서 평가가 지역문화재단 중 최하위권에 해당되어서 사업비 예산이 일부 감소되었다고 한다. 만약, 지역예술단체가 지원사업에 오류를 범했다면 재단은 책임을 지적하며 차기사업에 반영했을거다. 광주문화재단도 1년동안 함께 협업하는 예술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0년동안 그러한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예술가와 단체에 요구하는 것 만큼 스스로에게 똑같은 형태의 질문을 던지고 잣대를 대고 평가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광주문화재단 직원들의 능력

은 뛰어나다. 지역 현안도 잘 알고, 수많은 문화예술 정책보고서등을 통계적으로 잘 분석하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점을 재단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지역 예술가들의 불멘 목소리다.

지역예술가와 동반성장하려면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라.

그룹에도 불구하고 지역예술가들의 예술의지는 확고하다. 지역문화 생태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광주라는 특성에 맞는 브랜드 작업을 위해 코로나 시절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10년 지점은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시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와 발을 맞춰야 하는 광주문화재단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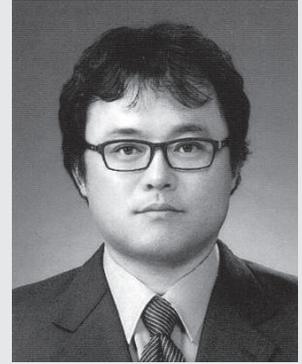
현장예술가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성과와 결과물 중심이 아닌 과정과 피드백 중심의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 사람이 먼저인 문화정책,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결정을 위한 예산 독립성 확보,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예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에 대한 교육연수등등! 하지만 정책 제언, 수립, 연구, 결과 등등의 형식으로만 그치는 건 아닐까? 광주광역시 문화예술보조금을 전달해주는 택배회사 역할만 이행하는 건 아닐까? 지금이야말로, 광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계가 결집해야 할 절호의 타이밍을 알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편입되려 하지 말고 당당히 광주문화재단의 주체적 사업을 꾀해야 한다. 예술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문화예술행정에 지역현장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 중심도시 광주, 사람 중심도시 광주, 예술 중심도시 광주가 되는 건 이제부터다!^^

광주문화재단, 오래된 미래 생각

임홍석_ 광주소극장협회장



공연예술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관객을 마주한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듯하다. 현장 예술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 답답해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의 답답함이 어디 이번뿐이었을까?

실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술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한 해를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신청의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창작활동을 위하여 얼마간의 사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 지원 선정 여부에 따라 한 해 계획이 바뀌기도 하게 된다. 사실 오랜 기간 지역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해 오고 입장에서 이 시기가 참 난감하기도 하다. 이제는 지원정책 및 사업의 모든 대상자들이 공감하는 것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지역의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창조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출연기관은 광주광역시이다.

실제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설립한 지방출자기관, 출연기관인 것이다. 실제 예전에는 시가 직접 공모를 통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을 수행하였던 적이 있었다. (최근에 다시 직접 수행을 하게 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관 중심의 문화예술 행정정책과 집행은 실제적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라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단이라는 전문가적 집단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재단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물론 지역에 우수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공연장 운영 등의 사업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만 10년을 넘긴 우리 지역의 광주문화재단은 과연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을 위한 정책수립 및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을까? 주변 지인들에게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답이 많다. 이해가 된다.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에게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의 지원정책이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에게 보편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첨언해본다.

먼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은 균형 있는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예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초예술이 튼튼한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생활문화예술이나 다원예술, 융복합 예술 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단체 중심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단체가 지원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된 휴식년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00만 원씩 3년 받은 단체와 8천만 원씩 3년 받은 단체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 큰 공연장을 왜 1~2개 단체만 상주하는지, 여러 단체가 함께 공연하고 축제가 아닌 그 상주단체들이 복합적인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면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기회를 더욱 확대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연장상주단체와 더불어 민간소극장 지원정책은 꼭 필요하다. 기초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타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에선 아직 소극장 지원사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2021 지원사업에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존의 레지던시 지원사업과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다. 지원사업 내용 중 청년예술인 창작지원과 기초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생각이다. 먼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또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나의 완성된 공연을 만들 수 없다. 이도저도 아닌 공연을 제작하라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 정책을 가져가면 좋겠다. 요즘 많이들 이야

기하는 창작의 씨앗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심사제도에 대한 보완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으로 무작위 심사위원들이 선발되어 지원금 선정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궁금하다. 물론 심사위원 선정에 따른 재단의 고충도 이해한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단체들의 노력이 먼저 이해되길 바란다. 심사제도 보완으로 심사에 대한 일정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한다. 심사위원들에게 전해지는 사업계획서와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있는지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선정되었든 탈락되었든 종합평가도 좋지만 지원 단체의 사업에 대한 코멘트 정도는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지원사업 중 공연예술분야의 무료공연은 지양해야 한다. 무료공연은 공연예술 현장의 자립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관객이 구입한 공연티켓을 들고 극장 앞에 줄 서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만 10년을 맞이하는 광주문화재단의 100년을 꿈꾸어 본다. 지역의 균형적인 문화발전과 지역예술인들의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늘 노력하고 계심을 충분히 알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단체의 피해현황조사, 예술창작긴급공모사업, 온라인미디어사업 등을 통해 다른 때보다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시도한 것 같다. 문화재단이 원칙적인 행정우선이 아닌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끊임없이 지역 현장 예술인들과 대화를 한다면 광주문화재단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출발점이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경이라면 그 필연적 결과물은 다양성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장과 문화재단 신임 대표에 바란다

“문화재단 직원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2011년 1월 설립된 광주문화재단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에는 포럼, 간담회, 자문회의, 연구용역 인터뷰,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 역할, 사업 등에 대해 꽤 많이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의 문화예술인이나 시민을 중심에 둔 관점이 아니라 재단의 구성원을 중심에 두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정책과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출자한 출연기관이다. 문화예술의 특성상 시의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인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전문성, 지속성, 자율성, 열정을 문화재단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명확히 말해두자면 문화재단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당장 문화재단에 취직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성원들과 특별히 다르게 일할 자신이 그다지 없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청년문화허브는 문화예술 NGO로서 가난한 대신 자율성과 열정,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어떤가?

문화재단은 광주시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으로서 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사업기획, 예산 집행, 감사, 성과 평가 등 시의 관리감독과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은 사실 민간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문화 전담 산하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런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재단 구성원마저도 시니컬하게 우리 문화재단은 시의 전담 문화기획사, 보조사업 배달부인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일 바람직한 구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처럼 재단 자체재산을 확보해 이자수익,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재단 대표도 아닌 광주시장에게 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면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입 대표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업무는 **밖이 아니라 내부의 문화재단 직원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디자인해 주시라는 것이다.** 재단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민간 문화예술단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재단의 설립 취지나 정체성과 달리 문화재단 직원들을 만나면 시의 ‘행정 공무원’과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담당하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을 뿐이지 행정 공무원처럼 느껴진다는 거다(물론 행정 공무원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문화예술 인력이 아닌 행정 인력으로서의 정체성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이다). 문화재단에 입사한 직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본인의 창의력과 열정을 발휘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싶었으리라. 그런데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자신의 전문성과 관계 없는 업무 배치,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순환 보직,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재단 기획 사업은 거의 없고 보조금 중심의 사업 관리, 공무원과 같은 안전 중심의 업무 평가 등이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같은 시스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직원들이 행정 공무원처럼 느껴질 수밖에...

그래서 나는 광주시장과 신입 문화재단 대표께 요청하고 싶다.

“문화재단 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면 좋겠어요.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지인들이 문화재단에서 여럿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화재단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사람

을 아직까지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물론 어떤 분야, 어떤 직장이든 본인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체감상 문화재단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짐에 틀림없다. 문화재단이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외부 문제보다 오히려 이것이지 않을까.

문화예술 분야 일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점과 창의성을 발휘해 세상에 새로운 것을 선보인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지금 재단 직원들은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비판받고, 창의성이 아닌 안전성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구조이다. 그러니 업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광주문화재단의 황풍년 신입 대표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외부에서 문화재단에 요구되는 여러 요청사항, 개선사항 등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입 대표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업무는 **밖이 아니라 내부의 문화재단 직원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디자인해 주시라는 것이다.** 재단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민간 문화예술단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문화재단 10주년, 재단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화만사성’이지 않을까. 재단 직원들이 행복해지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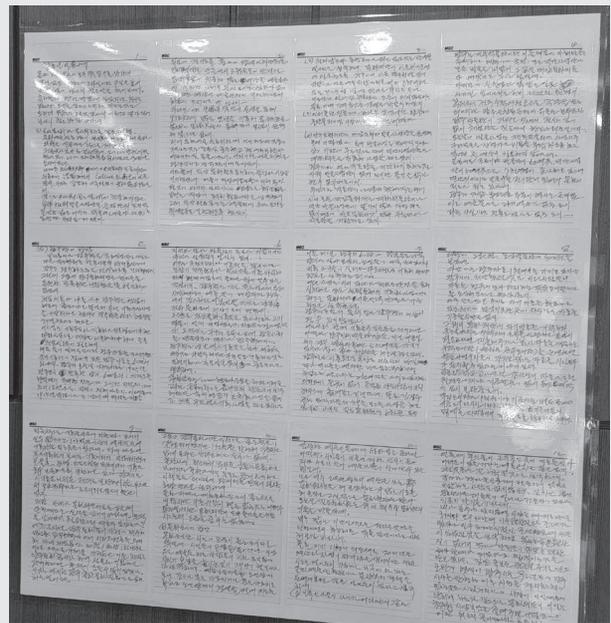
문화가치와 예술 투자의 새로운 길

인터뷰어 김정희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편집위원장
인터뷰이 황풍년_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랫동안 『전라도의 삶』을 꾸밈없이 기록한 콘텐츠로 지역문화잡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전라도닷컴의 황풍년 대표가 이제는 문화행정의 지휘봉을 직접 잡고 지역 문화계에 골 깊게 자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021년 10주년을 맞는 「광주문화재단」의 신임 대표로 자리를 옮겨 앉은 황풍년 대표를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듯 향토사학자 김정호 선생이 친필로 써주셨다는 당부 편지가 걸려 있었다.

김정희(이하 김) 반갑습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며 광주문화재단에서 직접 지휘봉을 잡고 일하시게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황풍년(이하 황) 먼저는 광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광주의 문화와 관련된 종합적 행정을 맡았다’라는 생각에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역에 만들어질 때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었지만 10년 동안 원래의 역할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도



김정호 선생의 당부 편지

됩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재단 내부에서도 성찰과 개선점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김 두루 지적되는 부분이 소통과 협력의 부재에

우리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포기하지 맙시다. 끊임없이 저와 문화재단을 질타하고 계속 주문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사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연대를 모색하고 시장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을 경계하고 현장과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관한 점인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가 없었고 자 문화나 위원회 같은 형식이 소통의 전부였다 라는 평도 있습니다. 특히 재단의 용역 사업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황 문화예술의 도시다, 민주성지다, 라고 불리는 광주가 그런 내실을 채워왔을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타도시보다 문화예술인이 우대받거나 시민이 문화예술을 보다 다양하게 즐기는 도시는 사실 아니죠. 또 민주성지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가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기능이 앞선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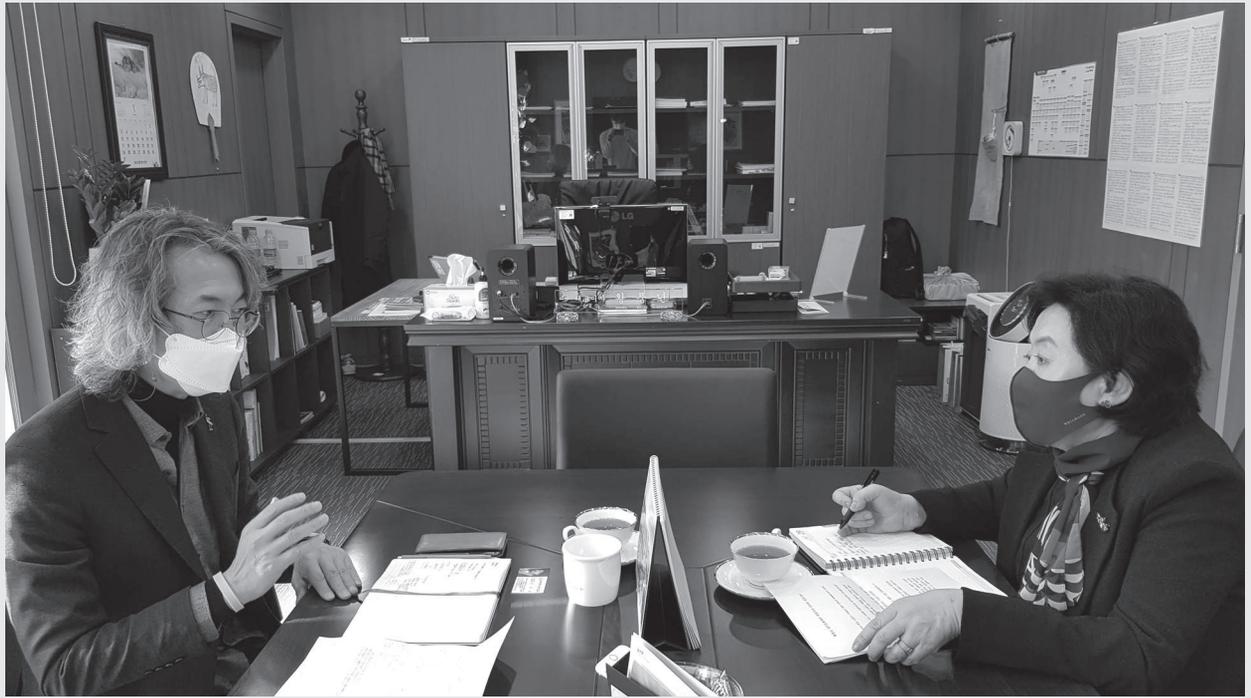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름에 걸 맞는 내실을 채워야하고 그 후에 그 이름도 내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문위원회나 이사회 같은 형식은 갖췄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일은 미흡했어요. 그런 기구조차도 틀에 불과했고 재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도를 고치는 역할은 제 몫을 하지 못했죠. 그럼 내실을 채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기존의 기구들도 내실 있게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고, 지금의 네트워크를 훨씬 더 확장해서 연대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그런 부분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예술가와 예술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인터뷰를 보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문화 공간이나 시설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앞으로 광주 문화재단의 중심 콘텐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황 현재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문화행정과 정책은 '광주'라는 문화다양성을 지켜내야 하는 역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재단이 있음으로서 어떤 문화를 지켜나갈 것인가, 현장에 어떤 것이 걸립되어 있는가, 어디에 힘을 줘야하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요



구를 끊임없이 고려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콘텐츠 방향은 광주만의 문화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껏 그런 시도가 많았지만 진짜 광주만의 문화 콘텐츠는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는 것과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 광주의 문화자산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광주문화재단을 생각해보면 공공서비스 기관이거나 혹은 정책집행기관이거나 아니면 그 중간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기관일까 의문도 있었는데 광주의 기본자산과 문화 역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황 저희 직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창작의 현장과 시민들에게 문화관련 전문서비스 기관이 되어야한다, 끊임없이 현장에 힘을 주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공급하는 전문서비스 기관

이 되어야한다고요. 단순히 행정으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결산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첫째가 현장과 시민에 대한 문화공공서비스가 우선이며 두 번째로 끊임없이 문화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의 산실이자 아이디어뱅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시민의 관점과 시민의 입장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을 조직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 저도 오랫동안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일을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예술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재단의 공공서비스 역시 예술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비대면 시대 앞으로 핵심 정책 방향과 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황 지금도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다. 다만 재단의 역할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현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하고 지원하는 원칙을 세우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고 또한 이것을 현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는 것이 이 광주문화재단에 던져진 숙제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단순히 온라인 동영상으로 변경하는 것만 해서 되겠느냐,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만족하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 광주에 살면서 문화예술도시라고 느끼는 것은 커다란 건물이나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작은 문화 공간 등에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나 시민들이 주도하는 전시 공연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가치는 계량적 조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지표가 확실히 나타나는데 문화력, 문화의 힘은 간과하기 쉬운데요. 문화력에 관한 대표님은 생각은?

황 광주를 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문화라는 것의 핵심은 다양성이고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전라도는 오랫동안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결핍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한 의식과 진보적 지역성을 가진 곳이에요. 그런 역사 속에서 소외와 결핍을 메워줬던 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전라도가 오랜 역사를 통해 이뤄낸 공동체성이 문화의 힘과 닿아있다 라고 보거든요. 문화를 단순히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다보면 문화의 본연의 기능과 가치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라도와 광주는 지역의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는 탄탄한 문화적 힘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힘을 시장주의와 대항하면서 어떻게 지켜나가고 지속적인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김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예술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황 우리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포기하지 맙시다. 끊임없이 저와 문화재단을 질타하고 계속 주문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사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연대를 모색하려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모든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역의 시민들과 예술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보고 싶습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기 보다는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을 경계하고 현장과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예술과 단체를 지원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민원사항이 있으면 재단과 관련해서, 또 관련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 역시 현장이 답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불편함 같은 것을 체감해보셔서 예술인들이 문화재단에 기대하는 바와 역할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나 요구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켜보고 또 서로가 투명하게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의 중심에서 예술인을 말하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로 시작된 그의 외침
비상근 프리랜서가 말하는 예술인의 존엄성

인터뷰어 임인자_ 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인터뷰이 장도국_ 배우

저희의 올바른 뜻과 목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나뉘하기를 희망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술인을 살리기 위한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인을 살릴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국최초관립극단으로 1982년 창단되었던 광주시립극단은 1987년 6년만에 해체되었다. 이후 2001년, 2005년 등 광주시립극단창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창단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다가 2012년 4월 6일 전격적으로 재창단 되었다. 하지만 이는 5명 정원의 정규직 단원 이외에 ‘작품별 단원제’를 표방하는 반쪽짜리 재창단이었다. 지난 2020년 8월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 작품에서의 ‘계약직 연작성’, ‘연출자의 갑질’, ‘무대감독의 성희롱’, ‘보험 미가입’, ‘안전사고’ 등 광주시립극단의 고질적인 병폐와 불안정한 창작환경을 지적하며, 폭력없고 안전한 창작환경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들은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현재까지도 길 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이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도국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임인자(이하 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다시 당시 이야기를 어렵게 여쭙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 광주시립극단에서 경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세요.

장도국(이하 장)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대부분 시립극단과 자주 작업하는 광주 지역 배우들이기에 연습과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더 빠르게 작품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바로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상황들을 개인이 참고 넘기는 경우들을 많아요. 보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배려 없는 말과 행동, 불필요한 접촉들이 연습실 안팎에서 벌어졌습니다. 계약서 지연 작성으로 인하여 상임 연출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의 아픔을 외면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을 입고 극단의 지원 없이 모든 수술비를 스스로 감당하는 동료의 억울함을 지켜보며 그마저도 연출자와 선배의 욕설과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탓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건담은 다음 그 다음 작품 참여 때문이었죠. 그리고 작년 8월 다음을 포기한 3명의 동료 배우들과 함께 극단의 불법적인 운영, 갑질,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기형적인 고용형태인 프리랜서 계약 체결이 가장 큰 문제죠. 운영 조례상 극단의 단원은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만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광주시립극단은 그를 무시하고 ‘작품별 단원제’라는 방식으로 매 작품 오디션을 통해 선별한 배우 및 스태프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상임 단원’과는 달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유령 단원’인 배우와 스태프는 사용자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작품 창작활동을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극단의 부실 운영, 상임 단원들의 업무 태만, 갑질, 성희롱이라는 만행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극단 총괄 책임자인 예술감독 역시 10개월째 공석(21년 2월 말 기준)인 상황에서 시립극단과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는 문제가 드러난 〈전우치〉 공연 이후의 두 차례의 정기 작품에서 상임 연출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작품 연출에 대한 권한만이 주어지는 외부 연출을 기용하여 상임 연출자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운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극단 정상화를 이끌어갈 주체는 부실 운영의 책임자인 운영실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상임 연출, 성희롱 가해자인 무대감독입니다. 모든 문

제를 발생시킨 가해자들이 적절한 징계도 받지 않고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 역시 너무나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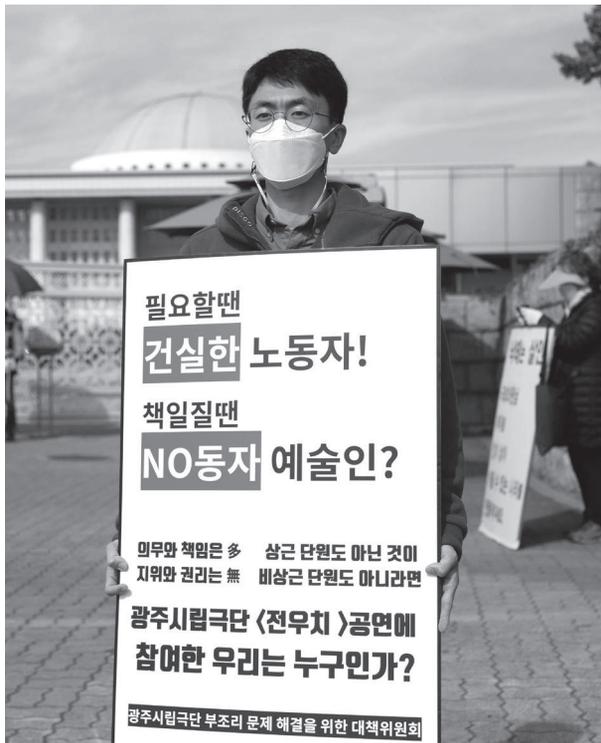
임 문제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예술계는 여전히 피해를 입어도 문제제기가 어려운 폐쇄적인 환경이기도 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의 태도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코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해결해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장 네, 제도와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예술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피해 사실을 문화예술회관에 알렸던 과정에서 발생한 합의 회유, 관리자들의 무책임함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고립감, 피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중징계, 운영 개선을 약속했던 성현출 회관장과 공연 지원과에 대한 신뢰 상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침묵,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 카르텔의 2차 가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의 후진적인 인권, 성인지 감수성을 마주하면서도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폐단을 마주할 시민(관객)들에게 행여 이 사안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 혹은 개인 사이의 다툼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그 모든 아픔을 견디며 하나의 진실만을 알러가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연대해 주신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심에도 끊임없이 이곳의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예술인 동료분들의 지지가 지금까지 노력해올 수 있는 큰 동력이었어요.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기관의 책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8개 시립예술단의 운영

과 광주 문화예술의 미래의 맡을 수 있는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책임자의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당사자가 아님에도 함께 비난받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직원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견뎌야 할 일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8개 예술단의 잘못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이심은 분명하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에서도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산하 예술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관리, 감독 주체인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 “유령단원”이라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5명의 정규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품별 단원제인데, 이를 표방하는 만큼 그에 따른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장 ‘유령 단원’으로 선발된 예술인들은 상임, 비상임 단원들과는 달리 작품마다 조금씩 변하는 보상 기준, 근무조건을 적절한 협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요.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지시와 간섭을 갖지 않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정의와 실제 모습은 차이가 커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광주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시립극단 참여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비상임 단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작년 12월 광주고용노동청이 시립극단 참여 배우, 조연출은 사용자인 문화예술회관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로 본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받고 가해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극 공연예술



인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문화예술회관은 2021년 2월 말 현재도 여전히 고용형태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작품의 내용, 컨셉에 맞는 역량을 가진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작품별 단원제’ 역시 최근 3년간의 작품과 출연진만 살펴봐도 ‘작품별 단원제’ 도입 의도가 잘 실천되고 있는지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 그렇다면 광주시립극단,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장 기형적인 고용형태 개선이 시급합니다.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도 참여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권리들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작품별 단원제’를 폐지하고 극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타 시도 시립극단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립극단 여건에 맞게 상근단원

을 모집해야 합니다. 예술회관 자체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어렵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단원체제 개선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작품 창작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며 지역예술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원이어야 합니다. 시립극단에도 운영위원들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 민간 극단의 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지난 7개월간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 극단 운영위의 어떠한 노력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극단 정상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없이 침묵했으며,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제 우려의 근거입니다.

임 결국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문화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 예술인, 예술 단체들이 부조리한 창작 환경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각 분야 모든 예술인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속에도 표현의 자유, 권리 보호, 다양한 위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처벌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극인들의 활동이 극장 안팎에서 활발해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연을 소비해 주는 역할만 해왔던 관객(시민)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여야 할 때입니다. 참여자들의 노동인권이 침해된 채 만들어지는 창작물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좋은 작품,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소비의 주체였던 관객(시민)들을 생산의 주체로 하여 문화예술계 정상화를 함께 이뤄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현장에 나오기 전부터 도제식 교육 속 실습만을 강조, 강요하는 지역 예술대학의 교육 시스템 속에 예술 윤리와 예술인 권리에 대한 교육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미 현장 예술인들과 같은 외부 지원사업, 축제, 공연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도 제발 계약서 작성과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 연극계 내에서의 문화적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화도 또한 중요하겠지요. 그에 대한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 앞으로의 대책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대책위가 결성된 이유와 목표에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 해소뿐만 아니라 광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정상화, 지역 문화예술계의 안정한 창작(노동)환경 마련,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더 긴밀히 소통해서 예술인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대책위에 연대하고 있는 각 단위와 지역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한 피해상담, 실태조사, 분야별 예술인 네트워킹,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예술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작품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부분, 지역예술계, 또 관객과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 이 사회를, 가해자를, 지역 예술계 동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늘 ‘희망’을 가해자들에게 대해서는 ‘용서’를 지역예술계 동료들에 대해서는 늘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편은 없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편은 늘 변합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지켜내는 일이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세력이 되어 힘을 키울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변화의 상징이 되고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올바른 뜻과 목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나눠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 혹은 각 단위가 이끌어 낼 변화 속에 서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뜻에 집중하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술인을 살리기 위한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인을 살릴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

세상에 물들지 말라

- 화순 물염정

임준성_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들어섰지만 세상 민심은 예전같지 않다. 전 세계를 미증유의 혼돈으로 빠뜨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2020년 한 해가 순간 삭제당한 기분이다. 코로나19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 세계가 방역에 집중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마치 쫓기는 듯하여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다. 그러나 설령 종식된다 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때에 두번째 절기 우수(雨水)를 앞두고 전남 화순군 동북면에 자리한 물염정(勿染亭)을 찾았다. 무등산 북쪽 산자락 아래 동북호를 배경으로 널찍한 곳에 늙은 나무가 서 있다. 주변 산자락 능선에는 나무들은 옷을 벗고 있는 나목(裸木) 상태이다. 봄이 오기 전 겨울산은 군살을 뺀 근육질 몸마냥 본래 숲을 보여주는 재미가 있다.

누정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현판 글씨가 보인다.



물염정 현판

이 글씨는 고당(顧堂) 김규태(金奎泰, 1902~1966)가 1960년대에 썼다. 물염정은 수년 전에 단청을 새로 입힌 터라 여느 누정보다 화려하다. 정면 오른쪽 기둥 하나가 배롱나무여서 눈길을 끈다. 매끈한 옆 기둥과는 달리 울퉁불퉁 표면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 정도 굵기면 몇백 년의 수령일텐데 베어내기 전 모습을 상상하니 사방에 백일 동안 붉은 꽃이 피었을 것이다. 누정 옆에는 물염적벽(勿染赤壁)이라 하여 수직으로 떨어지는 벼랑이 일품이다. 해질 무렵 석양빛이 비칠 때면 벼랑이 붉게 물드는 모습이 장관이다.

물염정은 조선 중기 때 인물 송정순(宋庭筍, 1521~1584)이 지었다고 한다. 그는 성균관 전적, 시강원 보

덕, 춘추관 박사, 풍기군수를 지냈으며,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청덕비(淸德碑)가 있을 정도이다. 누정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치 않고 송정순이 관직생활을 마친 말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 후 외손인 나무송(羅茂松, 1577~1653)과 나무춘(羅茂春, 1580~1619) 형제에게 물려주어 지금까지 몇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다. 물염정을 지은 내력을 담은 「물염정기」가 현재 3편 전하고 있는데, 그중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염정은 동북현 서쪽 이십 리에 있다. 호남에서 이름난 명승지이다. 사방에서 유람하는 사람들이 날로 모여드는데, 이 누정은 공주목사를 지낸 송정순이 지었다. 그 외손에게 전하여 나 씨 소유가 되었다. (중략) 물은 금지하라는 낱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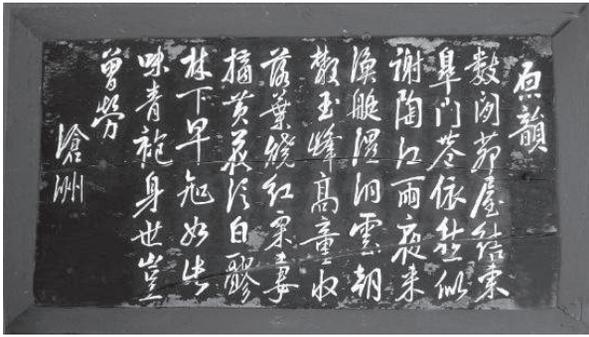
이고, 염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드는 것을 말한다. 물들을 경계하는 것은 마땅히 출세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송정순은 지극한 행실과 효우가 있었고, 관직생활은 청렴결백하였다. 또한 억울한 옥사를 분명하게 처리함이 신과 같았다.

勿染亭在同福縣西北二十里 湖左名勝之最 四方遊觀者日坌至 亭古知公州宋公庭筭築也 傳其外孫 爲羅氏有 (중략) 勿禁止辭 染謂染於世汚也 戒其染 宜先出身者也 宋公有至行孝友 爲官廉白 又明蔽獄如神. 「旅菴遺稿」 권4.

신경준이 『물염정기』를 쓴 까닭은 뒤에 나오는데, 그의 고조인 신극순(申克淳)이 송정순과 동지인 인연이 있었다. 친구인 나득태(羅得兌)를 위해 누정의 기문을 짓고 송정순과 외손 나무손과 나무춘 형제의 미



물염정 전경



물염정 원운

덕만을 오래도록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훈계가 됨이 깊어 특별히 써서 걸어둔다고 했다. 여기서 세상의 훈계는 세속의 물들지 말라는 것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물염정 안에 들어서면 28개의 현관이 걸려 있다. 그중 나무송(羅茂松)이 지은 「물염정」은 원운시를 살펴본다. 송정순의 외손 나무송은 문과에 급제하여 예안현감을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 병조좌랑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무사히 호종했던 경력이 있다. 상주목사 이유성(李惟誠)을 찾아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했다가 화친 성립 소식에 매우 통분했다는 내용이 앞서 소개한 신경준의 『물염정기』에 나온다.

數間茅屋結東臯	두어 칸 덧집을 동쪽 언덕에 지으니
門巷依然似謝陶	문 앞은 의연하여 사조와 도연명 집이라네
江雨夜來漁艇濕	밤중에 내린 비에 고깃배 젖고
洞雲朝散玉峯高	아침에 골짜기 구름 걷혀 옥봉 높아보이네
童收落葉燒紅栗	아이들은 낙엽 모아 붉은 밤을 굽고
妻摘黃花泛白醪	아내는 국화 따서 막걸리에 띄운다네
林下早知如此樂	일찍이 숲속에서 이런 재

미 알았다면

靑袍身世豈曾勞 청포 신세 어찌 수고로웠을까

칠언율시로 호(豪)운으로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두련에서 중국 남조 때 제(齊)나라 시인 사조(謝朓, 464~499)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가 선성태수(宣城太守)로 지낼 때 산 남쪽에 높은 누대를 짓고 앞산의 경치를 감상하며 풍류를 즐겼다. 도연명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귀거래하였으니, 나무송은 사조와 도연명처럼 선조가 물려준 물염정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노래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아침과 밤의 대조를 통해 자연 경물의 변화를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경련에 이르면 아내가 빛는 막걸리와 밤을 굽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일상생활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미련에서는 숲속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그 느낌 그대로 살면 근심걱정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을텐데 왜 그것을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청포 입고 관직생활의 수고로움을 반성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와 현재의 삶에 만족해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호남가」에 보면 화순을 일컬어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이라고 했다. 이처럼 화순은 풍속의 고장이면서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가진 고을이다. 화순에는 약 50여 군데 이르는 누정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물염정(勿染亭), 임대정(臨對亭), 송석정(松石亭), 침수정(枕漱亭), 영벽정(映碧亭)을 화순의 5대 누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물염정은 화순의 향토유산 3호이자 2004년 광주광역시 관광협회가 선정한 광주·전남 8대 누정 중 1호이다.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이 조심스러운 이 때 화순의 5대 누정을 천천히 둘러봄이 어떠한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이병훈_ 국회의원



천신만고 끝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에 한목소리로 성원해준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기까지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문화전당이 당초 목표대로 순항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점은 크게 반길 일이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 시즌2'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더블 백'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특별법 개정은 첫 단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전당과 관련한 지난 한 논쟁을 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전당 법인화 시도는 집요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축소·왜곡은 2015년 "관련 법인에 '부분위탁' 5년 후 '전부위탁'"이라는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극에 달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시점인 2020년의 법 개정 과

정도 순탄치 않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한 개의 단일법안을 놓고 3회에 걸쳐 논의되는 진기록을 세울 만큼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논의되었다가 결국 본회의도 지연시킨 후 본회의의 시작 5분 전에 의결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다. 우선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현재 정규직 144명으로 전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인력의 양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기술에 대한 적용을 위해 ICT분야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민관 정확히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해결이 곤란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다양한 도시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시민사회가 전당의 운영을 들여다보고 정책수립 과정에 간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활동 주체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던 과거의 관료주의적 입장은 오늘날 전혀 통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이든 공론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전당이 수행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질문

이제 남은 과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다. 우선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현재 정규직 144명으로 전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인력의 양 뿐만아니라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적용을 위해 ICT분야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민관정확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해결이 곤란할 것이다.

을 던진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문제의 본질을 매우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나는 전당이 문화콘텐츠를 실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전당의 콘텐츠 제작에 나타나는 실험성은 예술적 실험성과는 좀 다르다. 각종 인문자원과 테크놀로지가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각, 새로운 트렌드들을 다루는 실험이다.

변화된 감각체계, 인지체계는 새로운 상상을 요구한다. 남아시아의 신화 마하바라타가 현실이 되려면 무대 혹은 영상의 제작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을 마치 내 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갖춰야 한다.

3차원 입체영상이라든지, 레이저 기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이미 영화나 게임, 가정의 TV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은 대중적 확장성, 주목성, 경제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향하는 실험성은 다분히 대중적 확장성에 목표를 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콘텐츠산업을 리드하고 대중을 향해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며 이를 다수 콘텐츠 스타트업 그룹에 환류시키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천만다행인 것은 광주에 한국 인공지능 연구의 핵심 기지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부속 분야들이 속속 세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댐의 구축과 함께 문화전당 인근에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헬스케어센터 구축이 계획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문화전당이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인공지능 데이터 댐 기술과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술을 결합한 관광서비스 등은 덴마크 CIID, 일본 토요타, 영국 RAC 등이 이미 5년 전부터 실험한 적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선 도시 가운데의 '섬'이 되지 않으려면 울타리를 열어야 한다. 물론 전당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대략 7~8개에 이른다. 이쯤 되면 물리적인 울타리는 없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열라는 것은 시민의 마음에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조차도 별로 찾지 않는 문화전당이 되었다는 상황을 부정하고 싶지만 마땅한 구실이 없다. 전당은 여전히 철옹성처럼 시민 앞에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일반인이 제집 드나들 듯해야 할 아시아문화원의 라이브러리 파크는 여전히 앉아 책보기가 부담스럽다. 우선 시민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동안 공동화에 시달렸던 광주 원도시를 재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객 1천만의 시대를 꿈꾸기에 현재의 문화전당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우선 전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없다.

따라서 먼저 전당의 특성과 광주의 특성을 담은 대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필자는 5·18정신을 구현하는 대표적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콘텐츠는 단순히 5·18을 알리는 차원의 1차적 내용으로는 부족하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을 전제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시나리오와 내용, 연기력, 기술이 총망라되며 수십 년간 세계인의 주목을 끌며 공연을 지속하겠다는 크고 긴 안목이 필요하다. 보통의 생각과 노력으로 <케츠>와 <레미제라블>은 탄생하지 않는다. <미스 사이공>의 무대를 압도하는 ‘헬기’ 장면을 구성해낸 상상력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전당 외부에 있다. 전당 내에 있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인공지능 기술은 해당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과 방대한 연구결과를 기록한 시스템에 있다. 전당은 이를 서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당은 문화뉴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상승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K-Pop, 특히 BTS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며, 콘텐츠 수출량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은 우울하다.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이제 문화로 골든벨을 울려야 한다. K-컬처를 확대하여 경제적 성장동력을 만들고 문화가 가진 따뜻한 힘을 통해 국민을 치유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에 문화 뉴딜이 포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한국형 뉴딜은 그 꼭데기에 문화의 우산을 씌움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형 뉴딜을 수행하는 핵심코어가 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일으키고 국민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도와야 하며 문화적으로 성숙케 하는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

5·18의 40년을 지나 “40+1”을 준비하며



정찬일_ 놀이패 신명 대표, 41주년 5·18행사위원회 기획단

2021년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

코로나로 세상의 민낯이 드러났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평화롭던 일상이 전쟁터로 바뀌었다.

생명은 위협받고 양극화로 인해 여성과 아동, 비정규직, 극빈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나락으로 내몰렸으며 가짜뉴스들은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고 타인은 잠재적 감염자가 되었다.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사안으로 전 세계 민중들은 위기에 처해있다.

대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서구국가들의 의료시스템 붕괴로 세계대전보다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여 40년 전 광주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내적으론 촛불항쟁과 4.27 남북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체결, 그리고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5·18의 실제적 진실규명까지 모든 것이 멈췄다.

“위기의 시대, 5·18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

오월정신의 구현은 차별과 모순에 저항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대동 세상을 꿈꾸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이 민주주의의 위기, 공





동체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5·18정신을 되새긴다.

2021년 5·18 41주년은 '위기의 시대, 5·18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는 기조를 정하였다. 국가폭력과 불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와 협력으로 저항했던 오월공동체의 정신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5·18정신의 구현만이 우리 안의 불신과 단절을 떨쳐내고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국내를 넘어 해외의 민중들과 함께 함으로써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온전히 확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을 주목해주고, 이들이 주목받고, 주력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시민이, 일상이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야 한다.

'실체적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5·18의 시대정신과 현 시기 구현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는 5·18 역사왜곡특별법제정,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옛 전남도청 복원 가시화 등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변곡점의 해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수많은 광주시민,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이런 시민들의 열의를 모아 진상규명활동을 감시, 견인, 격려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또한, 오월정신의 계승과 진상규명의 범위를 확장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오월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했던 열사와 시민들을 주목하고, 이분들의 삶을 조명하여 명예가 회복되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오월은 각종 사안과 현안을 받아 안고 구현해 왔으며, 2021년 가장 절박한

민중들의 요구에 집중해야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득권세력들은 총공세를 통해 개혁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양극화와 차별, 각종 모순,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를 타파하고 5·18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 낼지 오월을 통해 담아내려 한다.

‘시대변화에 맞는 행사의 재구성, 주제와 내용의 다양성과 조화를 추구한다’

다양한 세대가 결합할 수 있는 오월행사를 통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5·18의 왜곡과 폄훼에 맞선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 지다보니 젊은 세대들에게 오월을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계기가 많이 부족했다. 이번 41주년 기획단은 30~40대, 경험자와 비경험자 등이 골고루 분포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봤던 오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소통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뜻 깊은 자리였고 이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되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에게 역할을 이어줌으로써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각 세대 들이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기대해 본다.

또한, 과거에 기조와 방향만 설정하고 해산했던 행사위원회 기획단의 위상과 역할이 아닌 행사전반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새롭게 시도해 봄으로 기획단의 올바른 활동방식을 찾아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행사위원회와 오월행사의 출범식부터 함께함으로써 진정한 연대와 참여, 오월의 전국화, 세계화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모두가 꿈꾸는 오월을 위해

작년에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



비웠으나 코로나로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40년 동안 지켜왔던 전야제가 열리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는 전면적인 행사취소보다는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전야행사와 오월행사를 준비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수많은 역경을 우리는 이겨왔고 현재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소통방법과 형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40년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꺼번에 바뀔 순 없지만 새롭게 시도해보고, 지금 시작을 해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오월을 맞이할 수 있다.

늘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시대적·의미적 과도기라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이번 41주년에는 기념과 계승, 추모와 투쟁, 일상과 축제, 소통과 연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두가 꿈꾸는 오월이 되기를 희망한다. ♪

우리 시절 아카이브

- 기억으로 기록하기, 기록으로 기억하기

조운윤_ 시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게는 그게 지난 대학 시절 뜻이 맞는 동기, 선배들과 시작하게 된 문학동인 '공통점'의 문우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친구들과 정말이지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게 된 지도 올해로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공통점은 다섯 권의 독립문예지 발행과 세 번의 온·오프라인 전시 프로젝트 기획, 여러 번의 강좌와 낭독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스물네 살에 공통점을 결성해서 스물아홉이 된 지금까지도 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저의 20대 시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빠질 수 없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무어라고 소개해야 이들의 특별함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 창작 수업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모였던 작은 스터디 모임이었고, 4년 전 독립문예지를 발행하면서부터는 독립출판단체라거나 청년작가들의 문학예술단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런 수식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 공통점은 같은

추억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료들이자, 서로에게 편안함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종의 공동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낮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다들 20대라는 소중한 시절의 많은 시간을 공통점의 일원으로 동고동락했으니까요.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지만, 5년이라는 적잖은 시간을 함께해온 만큼 변화를 맞은 것도 많습니다. 대학생으로 만났었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게 되었고, 누군가는 대학원에 입학했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를 떠나 먼 도시로 간 사람도 있고, 문학이 아닌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풍경도 사뭇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오직 문학만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고,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공동의 목표였다면, 요즘엔 문학과 미래에 대한 얘기 대신 현재와 현실에 대한 이야길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모임만 해도 우리가 나누었던 주된 이야기는 요즘 겪고 있는 회사 생활에서의 고충과 아직 마치지 못한 학업과 즐

누군가와 함께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때로 웃고, 때로 울며, 평범한 (듯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감각을 기억하라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문학을 위해 함께 분투했던 그 시절의 우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의 그 노력의 가치와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업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문학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시들해져 버린 것만 같다고, 생활에 치이고 치인 나머지 문학을 차선으로 밀어두고 말았다고 자조할 때도 있습니다. 매주 쉬지 않고 이어오던 시 창작 합평은 이런저런 이유로 쉬어가는 날들이 잦아졌고, 매일 조금이라도 책장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즐거운 강박은 사라진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였다고 낙담하기보다는 다만 한 시절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고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인생이란 언제나 똑같은 시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좋았던 시절이 가면 반드시 좋지 않은 시절이 오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단지 수면 위를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시절이라는 강물의 곁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겠죠. 한 시절이 가고 또 다른 시절이 오는 걸 가만히 묵시하면서,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아무런 장애 없이 물결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고 말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마따나, 시간의 물결에 몸을 누고

있는 우리의 이전과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도 옛 시절이 지나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불가항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생활을 위해 문학을 한쪽으로 치워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꿈을 꾸기 위해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뜻이겠죠. 언제까지 젊음을 무기 삼아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책무를 물러둔 채 자유를 만끽하며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세상 속에 무사히 섞여 살아가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서른을 목전에 둔 지금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문학이 아닌 문학 바깥으로도 눈을 뜨게 되면서 우리의 시와 소설이 담아내는 세계의 테두리도 더욱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로서의 우리네 시절이 결코 나쁜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젊고 야망이 넘치던 시기를 함께해주었고, 또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20대 시절은 충분히 괜찮았다고 여깁니다. 지난해 겨울에 발행했던, 어



『공통점』 5호

짜면 공통점으로 함께 책을 엮는 일로는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공통점』 5호의 주제를 ‘우리 시절 아카이브’라 지었던 건 시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필연적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우리네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두 번은 없다」라는 시로써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는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¹

(후략)

시에서 말하고 있듯이 처음이라는 건 그 순간이 지나면 눈송이처럼 녹아 사라져버리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일 뿐이겠죠.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우리가 받을 담고 있는 지금 이 시절, 이 강물의 감각과 기억을 쉬이 잊지 말라는 말로 읽힙니다. 누군가와 함께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때로 웃고, 때로 울며, 평범한(듯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감각을 기억하라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문학을 위해 함께 분투했던 그 시절의 우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의 그 노력의 가치와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활자로 책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일 것입니다. 사진이나 활자는 매개체일 뿐 중요한 것은 그 기록물이 불러일으켜 주는 우리의 기억입니다. 지난 겨울 기록하지 않은 생활과 변화 속에서 힘을 모아 엮어낸 공통점의 다섯 번째 책 ‘우리 시절 아카이브’도 단지 우리가 만든 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시간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잠시 흩어졌다가도 다시금 모여 새로운 일들을 작당 모의하며, 우리가 쌓아왔던 기록의 다음 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책이, 훗날 그 페이지를 펼쳐 든 이들에게 애뜻한 기억을 안겨주는 기록 보관소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1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끝과 시작』, 문학과지성사, 2016, 34쪽.

미래기념비 탐사대, 망각과 기억 사이를 탐사하다!

- 광주 청년들이 오월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법



문단은_ 창작그룹 MOIZ

‘우리의 틀을 직접 만든다’

창작그룹 MOIZ의 모토다. 작가, 시노그래퍼, 디자이너, 영상작가,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 청년 예술가들이 모인 크리에이터 그룹 MOIZ**는 작품에 담을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틀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리서치를 기반한 토론과 공동창작으로 해답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사는 광주에서 생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만든다. 작품으로는 〈노크 푹푹〉, 〈Alice in here: Gwangju〉, 〈나가 어찌케 살면 좋겠어요〉, 〈미래 기념비 탐사대〉, 〈금수회의록〉 등이 있다.

구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도청과 인접한 병원으로 가장 많은 부상자가 이송되었고,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그러나 당시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폐건물이 되어 기념비만이 그곳이 5·18사적지 11호임을 알려준다. 그러다 작년 1월, 소유자인 서남재단 측의 주도로 매각 경매가 진행되었고, 시민들에게 잊힌 사적지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떨어져 가는 적십자기를 보며, 수많은 이름으로 불러왔던 적십자병원이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 하고 묻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건물의 현재와 미래가 앞으로 5·18이라는 기억을 바라보는 시선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MOIZ는 구 광주적십자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활용 문제를 다루고자 〈나가 어찌케 살면 좋겠어요?〉라는 전시를 진행해, 매각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내가 바라는 건물의 미래’를 묻는 작업 등을 통해 얻은 답변은 인상적이었다. 건물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금 광주를 사는 자신에게 5·18이란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건물에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5·18과 관련된 인물인지에 대한 질문에 ‘시민군’ 역할에 한정되어 생각하는 점과 5·18 경험의 여부로 세대 간의 간극이 있음을 보며 광주 내 기억 층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역사를 전달하는 방식 또는 초점화된 기록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했다.

광주는 5·18이라는 일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왔다. 우리가 경험한 것만 해도 ‘수업, 체험 학습, 다큐멘터리, 소설, 영화, 대화·공모전, 레드페스타 등의 기념사업’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몇몇은

광주는 5·18이라는 일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몇몇은 관념적인 기억에만 치중되어 기억보유자 간의 층위를 만들고, 역으로 망각을 유발하는 기억방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방식이 현재 시민들이 5·18을 바라보는 시선을 만든 것이다. 이에 MOIZ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을 느꼈다.

관념적인 기억에만 치중되어 기억보유자 간의 층위를 만들고, 역으로 망각을 유발하는 기억방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방식이 현재 시민들이 5·18을 바라보는 시선을 만든 것이다. 이에 MOIZ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을 느꼈다. 1980년이 아닌, 93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청년들이 만난 5·18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간이 흘러, 기억은 기록되고, 기록은 기념된다. 지금 광장엔 기념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많은 기념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을 만들어주는 멋진 기념비를 찾아서

“이곳은 선택되지 못한 기억에 대한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2020년, 미래 기념비 탐사대는 ‘기억 화석’을 발굴하여 사라진 기억을 추적한다. 광주광역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동전, 불꽃 모양의 돌덩이들을 발견하게 된 탐사대. 이 화석에 담긴 기억을 알아내기 위해 화석에 얽힌 기억과 기념이 존재하는 평행세계 광주를 찾아가 탐사한다. 과연 탐사대는 화석에 담긴 기억을 알아내고 무사히 탐사를 마칠 수 있을까?”

그렇게해서 다큐멘터리 연극 <미래 기념비 탐사대>를 만들게 된다. 구 광주적십자병원에서부터 시작했지

만, 이야기를 구체화 시킨 것은 광주서 한 번쯤은 보는 5·18 기념비였다. 커다란 달걀 모양에 가운데 원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구멍이 뚫린 형태. 매일 보긴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우리 중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비석을 5·18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전혀 없는 곳에서 보면 어떨까? 동전 모양 화석으로 보이진 않을까? 광주에 사는 우리에게조차 설명되지 않은 기념비가 미래에는 더 모를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구체화하여, 선택되지 못한 기억이 남지 않은 다른 차원의 광주와 미래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광주로 탐사를 오는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 탐사대가 만날 4명의 광주 청년인 MOIZ의 5·18에 대한 경험부터 수집했다. ‘5·18 첫 기억’, ‘참여한 기념사업’, ‘5·18과 관련된 사람일까?’ 등의 질문에 4명 다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받은 교육부터 참여도, 개인의 기억에 따라 5·18에 대한 기억과 감상이 달랐다. 특히 기념사업에 대한 입장이 첨예한 차이를 보였는데, 신성시되는 5·18이다 보니 기념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다루는 것이 시민들에게 상처가 될까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덜컥 서울 남산예술센터의 ‘서치라이트’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재밌는 점은 광주에 제출한 같은 기획서는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다. 광주

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타지역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당장 서울에서 공연해야 할 동력이 부족했다. 다른 차원의 ‘광주’를 탐사해야 할 탐사대가 갑자기 서울에 왜 간다는 말인가. 그런 상황에서 당장 2020년 3월 서울 공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코로나 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다. 금방 잠잠해질 것이라 낙관적으로 봤던 것과는 달리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장기전이 되었다. 특히 강력 대응을 해야 했던 서울의 모든 공연장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서치라이트’ 공연 역시 무기한 지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공연은 뭘 말하고 싶은 건데?’의 골레와 겨우 정리한 대본에 대한 드라마티그의 혹평까지 겹치면서 공연은 한 치 앞도 모르게 되었다.

그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제안으로 5·18 40주년 기념 출범선언문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5·18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오월어머니회’, ‘5·18 기념행사위원회’, 가두방송을 하셨던 분들의 유공자를 만나 인터뷰했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국군통합병원, 505보안부대, 전일빌딩 등을 가게 되었다. 각자 탐사일지를 작성해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감상을 기록했고, 현재의 광주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 기억 전승 방법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대본의 목적과 구성이 대폭 수정되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7월 남산 공연이 확정되었다. 광주에서 소수의 지인과 함께한 프리뷰 공연을 했고, 비록 거리 두기로 한정된 좌석이었지만 서울 공연도 매진으로 성공리에 올릴 수 있었다. 공연 내내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을 설문지로 다루면서, 광주는 물론이고 타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5·18을 조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공연이 끝나고 GV 시간에 관객이 물었다.

“신선한 시점이었고 솔직했는데, 공연에 등장하는 자신에 대한 솔직도를 평가한다면?”

참여한 모두의 의견은 모르나 확실히 100%는 아니



다. 제작 과정이 곧 광주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버렸고, 자기 검열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감정 소모가 심했던 탓에 다시 MOIZ가 5·18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광주에서 창작 작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5·18이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불편하게 한다면 다시금 꺼내게 될 것이다. 현재 MOIZ는 <미래 기념비 탐사대>의 도서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다양한 문화 활동의 일반성을 꿈꾸다



김훈민_ 티키타카 대표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독자의 입장으로 '문화 활동의 일반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말하는 '문화 활동의 일반성'이란 창작 혹은 제작에 관련된 일반성이다. 문화 활동이란 영문으로 직역하자면 Cultural activity인데 여기서 Activity의 사전적 의미를 빌리자면 취미나 특별한 목적을 위한 활동이다. 고로 문화 활동이란 전시회 혹은 연극, 뮤지컬 등등 수 많은 콘텐츠들을 관람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전시회 혹은 공연들을 제작하고 만드는 것에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작자 혹은 창작자가 아닌 관객, 관람자로서의 문화 활동을 인식한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가지 전문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방대한 에너지의 소모'와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방대한 에너지의 소모'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풀이를 늘어 놓자면 어느 한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어느 한 콘텐츠를 관람하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가 적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투자를 통하여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이어서 '접근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독자들이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보거나 컴퓨터로 인터넷 창을 연다면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시청 할 수 있다. 반전적으로 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면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보다 빠르게 혹은 편하게 배우거나,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야 그럴것이 대부분의 매체들은 사람들의 수요 즉,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방대한 에너지의 소모'없이 즐기고 그것을 요하다 보니 우리에게서 창작자, 제작자로서의 문화 활동은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창작, 제작자로서 활동은 왜,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창작과 제작의 활동들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우리들은 서로의 콘텐츠를 더 많이 공유 할 수 있으며 그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더 많고 다양하며 격없는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넘

쳐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격없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았는데 필자가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전문가적인 요소 때문인데 앞서 내놓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필히 영화를 만든다던가 미술품을 만들다던가 하는 행위는 전문지식을 요한다.

이글을 유심히 읽던 독자라면 의구심이 들 것이다 “시작할때는 문화 창작자, 제작자의 일반성을 꿈꾼다 하지 않았나?” “격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문지식이 필요 하다는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 모두 이미 제작자로서 문화 활동을 즐겨보았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적 노트에 소설을 적거나, 만화를 그리며 혹은 소꿉놀이를하며 아내가 되거나 남편이 되는 배우도 돼 보았을 것이다. 어렸을 적 여러분은 훌륭한 감독이자 배우였으며 작가 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끈을 놓게 된다. 물론 “어렸을 적 소꿉놀이를 해 보았으니 전문지식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예시를 다루게 된 주체 적인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말자.” 씬으로 해석 해 주기를 바란다. 필자는 실제 연극이라는 전문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티키타카’라는 연극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꿉놀이와 비할 바 없는 활동일 수도 있겠지만 한 동아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누군가는 내용을, 누군가는 음향을, 또 누구 누구는 조명, 소품을 이러한 방식들로 전문지식을 요할 때 각각의 분야를 나누어 조금씩 알아가며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100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은 항상 방대한 에너지 즉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돌리며 지식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100명이 각 1의 지식을 가지고 합한다면 100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필자도 이러한 행동들을 취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다. 단원 대부분이 본업을 유지하고 있어 시간에 구애를 받기도 하였고 각자의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공연 날짜를 미루기도 의견이 부딪히면 다수결로 진행 할 수도 있었기에 오히려 본업을 유지하며 격없이 즐겁게 활동 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도 한번은 꿈꿨던 문화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수라던가 댄서, 영화 감독, 배우, 공예가, 미술가. 모두가 전문가 일 수는 없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포기 할 것인가? 학교가 끝나고 태권도 학원을 다녔던 것처럼, 일이 끝나고 헬스장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태권도 전문가도 헬스장 전문가도 아니었다. 이제는 전문지식이라는 격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 필자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티키타카라는 클래스, 모임 형식의 멀티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어 곧 연극, 댄스 등의 스탠딩 문화 공간을 추가 제작하려 노력 중이다.

글의 두서나 문장의 나열이 엉망인 것을 보며 독자는 짐작하였겠지만 필자는 글에도 소질이 없으며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소위 배우지 못 한 사람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즐기듯 문화 생활을 제작, 창작함에 빠져들고 즐기며 마음속의 작은 소망들을 풀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은 전달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마스크가 익숙한 아티스트들에게



이준혁_아트트리아카데미 원장

아티스트 중심으로 운영하는 일러스트 학원을 개원한 지 2년 차 되는 해였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학원은 나날이 성장세였고 욕심이 생겨 전국을 목표로 온라인 수업을 기획하는 중이었다. 때는 2020년 2월, 조선대학교와 전남대병원 사이에 위치한 우리 학원은,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수백만 원의 환불로 익월마다 집행했던 선생님들 급여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코로나는 윗지방, 옆지방 얘기로 생각했던 안일함은 결국 광주를 집어삼켰고, 결과는 현재 광주에만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주변의 소식은 매우 처참했다. 친하게 지내던 공방 사장님은 임대료에 못 이겨 폐업을 결정하고 단골 카페는 문을 닫았으며, 대구에 위치한 선배네 미술학원은 걱정에 안부조차 물어보기 미안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일반 미술학원과 달리 우리는 컴퓨터학원으로서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구성되어 가고 있었다. 4차산업 유망직종으로 분류되어 광주청년센터 주관의 청년일경험드림,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직원들을 충원해갔다.

처음엔 학원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직원채용, 나아가 디자인 인력을 뽑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그림 작가들을

충원하여 10여 명의 아티스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을 토대로 아웃소싱 기업을 설립하였고 게임·웹툰·일러스트, 남구 사직동 도시재생에 참여하였다. 일을 받음으로써 아티스트들의 생계를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는 분명 어려웠지만, 열심히 기획하고 움직였다. 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맞춤형 작가를 소개하고 아웃소싱 및 취업알선을 통해 아티스트 수익창출에 열을 올렸다. 학원은 작가 파견 출강으로 초·중·고등학교 진로 체험, 대학강의 기반으로 아티스트 전문강사 양성, 전문강사의 수업으로 아티스트 전문가를 양성하였다. 현재는 작가 기반 게임·웹툰·일러스트, 문화콘텐츠 시장으로 접근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아티스트는 각자가 브랜드이다. 우리는 작가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작가의 브랜드 신장을 통해 작가 작품의 사용 폭을 넓히게끔 도와주고 있다.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알리는지, 아티스트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인 예비 작가, 현업 작가들이 많다. 좋은 기업을 만나 서로 성장하는 구조이

면 다행이지만, 좋은 작가들이 실력대비 낮은 급여로 일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작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화 방안을 서로 공모하여 발전시킨다. 물론 사업화에만 집중한다면 좀 더 수익 창출이 수월할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가 어떤 과정으로 자신의 그림이 사용되고 수익화가 되는지 모른다면 자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작가 스스로 자립하길 바란다. 작가 출신 대표, 관리자를 양성하여 아티스트 기반의 기업 인프라를 꿈꾼다. 재주는 꿈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버는 구조가 아닌, 탄탄한 뿌리를 만들어 작가 스스로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게끔 하는 것이다.

브랜드 마케팅은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나, 현재는 아티스트 브랜드를 활용해 유튜브를 운영 중에 있다. 아직은 구독자가 1,500명대의 소규모 채널이지만, 양질의 교육·문화콘텐츠를 통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가며 콘텐츠를 늘려가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코로나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기도 중요하다. 언택트 콘텐츠 외에도 나아가 교육키트·굿즈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티스트의 브랜드와 팬층을 활용한 마케팅으로써 진행하며, 언택트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교육, 전시, 페어 참여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현코로나 시점에서 아티스트는 힘을 합쳐 발 빠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시점에서도 고민해야 할 숙제가 많다.

작년부터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만렙백수 협동조합과의 인연으로 콘텐츠를 기획해 가고 있다. 동갑, 동명의 대표와 연이 맞아 불안한 시기에 같이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다. 서로 좋은 취지로 설립한 만큼 청년 아티스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가깝게만 봐도 광주에도 우수한 아티스트들이 많다.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각각의 미술대학을 보더라도 학생 결과물이 전국권 기준으로도 부끄럽지 않다. 그럼에도 광주에 아티스트들이 생계가 어려운 건 자생이 어려운 구조, 더



불어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업무를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오랜만에 나와의 인연으로 만화계로 뛰어든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다. 뛰어난 실력이 있었지만, 그는 프리랜서로서 어떤 걸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광주에 일자리가 없다며, 서울로 가야 한다며...

청년들은 방황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아티스트들은 현 상황은 고독기임이 맞다.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이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학원은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열심히 날갯짓 중이다. 날갯짓을 멈추면 추락할 수도 있기에 열심히 날개를 움직이고 있다.

소비침체, 서민 경제 악화, 자영업자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현 상황은 분명 절망적이다. 하지만 청년 아티스트들은 더욱 날개를 움직여야 한다.

코로나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날아보자.

분명 길이 보이리라 생각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티스트로서, 그 출신인 사업가로서 청년 아티스트를 응원한다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

늘 앞장서서 응원한다. ♪

문화광주

김옥렬_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지난 해 가을 춘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춘천문화 매거진 『팟(POT)』이라는 잡지에서 읽은 글이 하나 생각난다. ‘책읽는 춘천(책춘)’이라는 모임의 송승철 대표(한림대 명예교수)가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춘천을 대표하는 대중 축제가 마임축제인데, 사실상 강원도민들이나 춘천시민들의 생활속에, 마음속에 마임이 얼마나 자리잡았는가? 축제가 열리는 5월에 대학가는, 거리는, 극단들은, 닭갈비집은 마임과 어떤 관계가 있고 마임을 즐기는가? 축제 운영자들의 창의적 기획과 헌신적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중축제가 되었지만 과연 이 축제의 주인은 누구이고 시민들 속에는 얼마나 녹아있는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었다. 물론 축제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과연 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또는 축제의 성격이나 진행이 어떠해야하는가를 묻는 글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임축제가 33년이 되었건만 지역 대표대학인 강원대에 마임동아리 하나 없고, 참여 극

단도 관객도 모두 외지사람들이 이 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라고 묻는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광주의 모습이 겹쳤다. 참 민망한 표현이었지만 한 때 ‘문화수도’임을 자처했던 광주의 현실은 어떤가? 앞서 문제제기를 한 송 교수의 질문을 광주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춘천의 상황과 광주가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아니 똑같다고 본다. ‘문화수도’ ‘문화예술도시’ ‘예향론’을 내세우며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광주다. 문화인프라는 날로 늘어나고 그 종류나 화려함도 타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본다. 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앞에 두지 않아도 우리 도시의 문화인프라, 문화콘텐츠는 가난하거나 빈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구 몇 명당 시설 몇 개 등 숫자놀음으로 평가하자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박선 전당이나 재단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넘쳐나면 넘쳐나지 부족하지는 않다는 게 판단이다. 다시 말해 공연이나 전시, 축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즐기거나 우리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키우는 현실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춘천과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도 충분한 명성의 문화관련 콘텐츠를 갖고 있다. 광주시에서 국제적이라고 늘 자랑하는 광주비엔날레가 이미 13회째를 맞고 있고, 디자인비엔날레라는 빅 이벤트도 열고 있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축제는 매년 봄~가을에 주말마다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로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ACC가 있다. 한 때 광주국제영화제를 했고 이러저러 이름의 다른 영화제도 많이 만들어봤다. 임방울 선생의 이름을 딴 국악제도 있고 충장로를 내세운 축제도 있고, 5월을 내건 음악제도 있다.

하지만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자. 과연 이런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들이 과연 얼마나 시민들의 가슴속에 녹아 있는지. 비엔날레가 되면 시민들은 과연 기꺼이 표를 사서 비엔날레관을 찾는가? 관가에서 흘러나온 공짜표 대신 흔쾌히 지갑을 여는가? 과연 비엔날레 기간 시즌이 되면 시민들이나 상인들 모두 비엔날레에 애정을 갖고 홍보대사가 되며 잔치를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매년 봄부터 주말이면 금남로를 뜨겁게 달구고, 엄청난 축제라고 자랑하는 프린지 페스티벌에 돈 들여 데려온 극단 말고 광주의 극단이나 예술팀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개관 5년이 지난 ACC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 행사에 광주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찾아가 보았는지? 이들 모든 문화행사가 동원된 인원이 아니면 얼마나 객석을 채우는지, 관의 예산으로 전폭적으로 밀지 않으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입장수입이나 수익을 내는지?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래서 저런 콘텐츠들을 다 버리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어느 정도 자리잡은 것도 있고, 문화생태계 유지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억지로라도 해야하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화예술 행사들이 과연 왜, 누구를 위해 하는지, 또 그 향유자들인 시민들과의 괴리를 없애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재점검해보고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



기다.

문제는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키되 그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장의 지적과시용으로 운영되는, 광주다운 정체성도 무엇도 없이, 다른 지역에서 하니 따라 시작했고, 그저 관성적으로 굴러가는 행사가 있다면 한번 쯤 점검해야 봐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경우도 봤다.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있으니 나누어주고 진행은 하지만 관객이 전혀 들지않아 유료로 무료로 돌리고, 출연진들까지 나서 관객을 동원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관성 같은 것들 말이다.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도 학교에 강매하는 수학여행 단체관람을 빼면 관객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억지로 예산을 써야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할 지 참으로 난감하다.

과연 문화광주, 예향광주의 자산은 무엇이고, 또 그 자산들은 어떻게 가꾸어가야 할까? 시민들에겐 아무런 감흥이 없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관성으로 굴러가야만 하는 현실은 어떻게 극복할까? 돈을 대는 문화당국은 이런 데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할까? 광주라는 도시의 색은 커녕 영혼조차 없이 계속되는 평범한 문화행사들을 어찌해야할까? 머털 맞대고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늦었어도 늦은 게 아닌 듯 하다. ♪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광주시 교육청에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웹툰 책자 기증식 가져



우리 재단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웹툰』 책자 기증식』을 갖고 320여 개 각 학교에 책자를 배부하고, 공동으로 수업안 등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월 17일 10시 30분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열린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 웹툰 책자 기증식'에서 우리 재단 백수인 이사장과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김덕진 교수, 이기훈 상임이사 등이 장희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한 자리에서 책자와 관련해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재단은 총 400부를 교육청에 기증하고,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가 가능토록 했으며, 수업안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

2021년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2021년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가 지난 2월 25일(목) 우리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김덕진 이사, 신규 감사로 최희용 후원이사, 박신영, 김옥렬 위원 및 후원이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 재단 임원 개편을 하였다. 또한 재단 사업 및 예산(안) 추경은 작년 12월에 가 승인된 사업예산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는데다,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을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승인하였다. 한편, 재단 임원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를 사무처가 진행키로 하고,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사장 취해임식을 갖기로 하였다.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52호) 기획회의 개최



문화담론지 『창』 봄호(통권 52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1월 12일(화)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 봄호(통권 52호) 특집기획 기사는, 전문가와 현장 예술인의 시각에서 광주문화재단 설립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우리 재단이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창』은 특집 기획 외에도 문화진단, 문화현장, 문화 청년그룹 소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호평받고 있으며, 임회원 뿐만 아니라 행정, 유관기관, 시민문화예술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연대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1월 20일(수) 11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전일방 부지는 광주



의 마지막 남은 근대산업유산이므로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대책위는 우리 단체 김덕진 부이사장(광주교육대 교수)이 공동대표, 정광민, 박흥근, 정성구 이사와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단체가 공동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장 면담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대표단이 지난 2월 19일(금) 광주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전일방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전에 조율한 대책위의 입장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와 이기훈 상임이사가 참여하였으며 우리 재단이 공동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 총회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3일(화)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 사업 및 결산, 감사결과보고 승인에 이어서, 2021년 사업 및 예산 승인과 공동대표, 감사, 간사단체 선임 등 2021년 본격적인 사업과 조직 운용을 위



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한편, 우리 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대표 단체와 간사단체를 역할을 수행기로 하였다.

광주관광재단과 MOU 체결



문화관광콘텐츠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광주관광재단과의 업무협약이 지난 2월 25일(목) 오후 2시, 광주관광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업무협약은 광주역사문화자원 정보 및 콘텐츠 교류, 문화관광 분야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브랜드 확산, 양 기관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광주' 홍보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은 우리 재단은 백수인 이사장과 김덕진 부이사장, 광주관광재단은 남성숙 대표이사와 부서팀장 등이 참여하였다.

논평 발표

- 아특법 개정안 1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우려에 대한 논평 [2021. 1. 6.(수)]
- 아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논평 [2021. 2. 23.(화)]
-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논평[2021. 3. 1.(월)]

재단소식·회원소식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김덕진(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광주교육대-광주교총 업무협약 체결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최도성)는 27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덕진, 이하 광주교총)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 전 업무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학력 격차 문제의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상호 기관 협약을 통해 연구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시사매거진) 발췌

이상필(동신대 교수) 운영위원, 전시와 사랑방 역할 겸한 '문화예술공간' 개관



근대역사문화도시 나주에 전시와 사랑방 역할을 겸한 문화예술공간이 문을 연다. 나주시 남교문 뒤 남외 1길 37-5에 들어설 '상상예술창고'가 그곳으로, '피노키오' 시리즈를 통해 국내 외 미술계와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중진 화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기초교양대학·문화박물관장)가 사비를 들여 마련한 공간이다. '상상예술창고'는 2월 초순 설 연휴 전 개관전을 열 목적으로 한창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필 교수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보고 하니까 미술 또는 관련한 사람들이 오가며 들르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면서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꼬마들이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자들에게 체험 등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문화예술쪽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기획해 활력이 더한 공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광남일보) 발췌

최희용(세무사) 이사,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이란 무엇인가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들어 지역 사회 전반에 회자되고 있는 '광주형'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고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대학교링크플러스사업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가 주최하고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이 주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주형이란' 주제의 포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전남대학교 김남주 홀에서 개최된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운영덕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경례 박사 더함 전문위원 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크 패널로는 ▲박병규 이사장 ▲정대근 더함 경제문화연구소장 ▲하정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협력관 ▲최희용 세무사 ▲최유진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을 기획한 운영선 이사장은 “광주지역 최초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해 광주형의 개념과 의미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광주형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담론이 돼 대안적 경제사회의 모델로 발전해야 할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 (남도일보) 발췌

이민원(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사,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민운동본부' 출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광주시·전남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힘을 모으는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공공기관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는 8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운동본부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문이며,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상임대표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현덕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장재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

조합협의회 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공동 집행위원장은 김광란 의원(광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조진상 동신대 교수(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박종렬 집행위원장(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속해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이철우(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사, 전남대 학술동아리 'PIMM', 게임제작 경진대회 '대상'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창의적인 게임 제작 기술을 겨루는 '인디스타즈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리틀버그'팀(소프트웨어공학전공 이정석 3년, 이한나, 이동준, 마혜진 각 2년)은 첨단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기술을 적용해 창의적인 게임 제작 기술을 겨루는 대회에서 이같이 수상했다. 이 대회는 우수한 게임 제작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PIMM'(지도교수 이철우 교수)은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및 게임 제작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험을 쌓고 이를 활용해 창업과 취업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광남일보> 발췌

한선(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운영위원, 광주전남언론학회 제24대 회장 취임



호남대학교 한선(신문방송학과) 교수가 29일 광주전남언론학회 제24대 회장에 취임한다. 광주전남언론학회는 29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광주전남언론학회 2020 하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선 회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한선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지역 언

론에 위기가자 기회"라면서 "지역학계와 언론현업 종사자들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지역 언론의 미래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기획이사 및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 및 언론중재위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남일보> 발췌

진시영(미디어아트 작가) 운영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송년 언택트 미디어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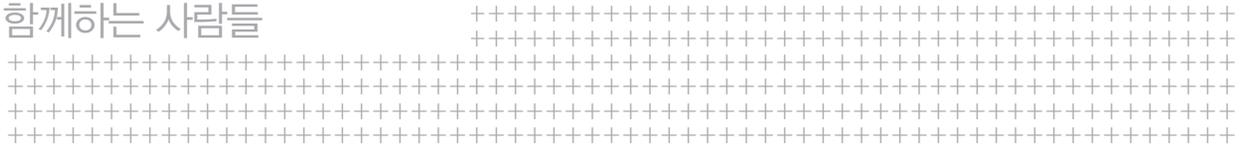


안산문화재단은 24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겨울 프로그램으로 '송년 언택트 미디어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지난해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 겨울 프로그램을 올해는 장소를 옮겨 안산 9경 중 하나인 노적봉 폭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2021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미디어파사드 '안산, 빛의 꿈을 그리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안산, 빛의 꿈을 그리다'라는 진시영 작가의 작품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연출한 도입부를 시작으로 노적봉 폭포를 흘러내리는 용암과 솟아오르는 연등으로 구성된 1장, 단원 김홍도 민화 작품을 재해석한 2장, 안산의 시조인 노랑부리백로를 표현한 3장, 안산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표현하는 4장, 마지막 꽃을 활용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엔딩으로 구성됐다.

- <인천일보> 발췌

<p>신규회원 "환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여정(회사원) • 김윤아(전업주부) • 황풍년(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송재형(광주도시철도공사 상임감사)
<p>연납회원 "감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이남(미디어아트 작가) • 남성숙(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부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현 (사)빛고을사진문화포럼 이사장,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성환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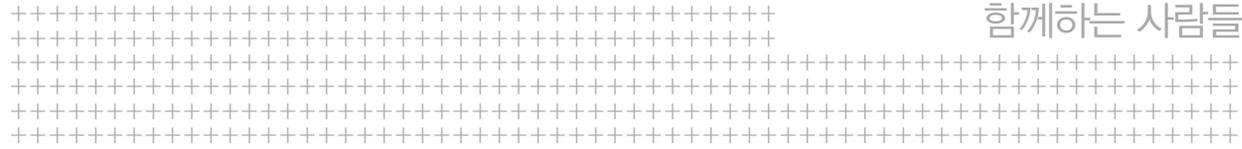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최화용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팀장

김남중 청년인턴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운윤 시인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31호)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 동계리에 있던 것을 1934년 증심사로 옮겨 온 것이다. 현재 광배(光背)와 대좌(臺座)는 잃어버렸지만 불상 자체는 완전한 편이다.

이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光州 證心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은 조각수법에서 볼 때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통일된 균형미를 보이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며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 등과 함께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인용 문화재청

편집 후기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구나’(春來不似春)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쓴 「소군의 원망」에 나오는 쇠구처럼 마스크를 쓰고 맞는 봄날이 조금은 원망스럽습니다.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 분명 봄은 오고 있고 2021년 『창』 봄호가 산뜻한 느낌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래도,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새 길을 여는 광주문화재단의 10주년을 돌아보고 선결 과제들을 몇 분의 필진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충돌이 아닌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의 길, 그 최전선을 살펴보고 정책의 분광효과도 기대합니다.

삿갓을 눌러쓰고 세상의 ‘염(染)’을 경계한 난고 김병연이 적벽에 시를 남기고 생을 마친 곳이 동북 땅이지요. 세상의 부조리한 것으로부터 물들지 않으려 했던 화순 물염정 주인의 삶의 태도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늘 발품 팔아 둘러보아야 할 좋은 장소와 글 소개 해주시는 임준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문화 환경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의견을 옥고에 담아주신 필자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집실의 이지호 사업팀장님 편집위원님들께도 더불어.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